

01 교회소식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 ~

아프리카 선교를 창대히 이뤄가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예배와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농아 선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앞길을 환히 비추는 빛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03 기획특집

달력 안에 담긴 비밀

누구나 볼 수 있는, 날마다 보는 달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04 간증

“마음이 예뻐지면 축복을 받아요”

선을 좇아 행하니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뀐 송원규 집사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등을 치료받은 페루 나팔리아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867호 2018년 12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아프리카를 깨우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아프리카 복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는 지난 11월 18일(주일),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3,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는 아프리카 8개국에서 총회장들과 만민 지·협력교회 목회자들과, 교수, 변호사, 경찰, 실업인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창립은 어느 해보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로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날 오전 주일 대예배 때에

는 나이로비만민교회 청년선교회의 특송과 성가대원으로 구성된 공연팀의 무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어 만민중앙교회 일꾼들이 이스라엘 선교 등을 통해 전 세계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내용의 만민매거진 상영 후, 담임 정명호 목사(예수교아프리카 연합성결회 총회장)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와 만민의 사역에 관해 증거하였다.

오후 기념예배에서는 동아프리카 복음전도협회 총재 및 케냐 대통령 자문인 끼똥가 목사(리딩 가스펠 총회장)가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끼똥가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은 의인 중의 의인이며, 만민중앙교회는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한편, 창립 18주년 전야 행사로 11월 16일 금요일야예배 2부 시에는 각 선교회 특송과 헬렌 교수(테이스타 대학)의 특송

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7일(토), 아프리카 및 케냐 만민 지·협력교회 목회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명호 목사는 ‘교회와 주의 종’이라는 주제로 주의 종의 의무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전했다.

창립 18주년을 맞기까지 아프리카에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를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에 펼쳐지는 농아 선교



해외 곳곳에서 농아 성도들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농아 선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많은 농아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거나 이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뒤 귀가 열리고 듣게 되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함으로 지인들에게 뜨겁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진 2).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예배나 금요철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화상(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으며(사진 1),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소셜미디어)에

서 소식을 접하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그 결과 농아 성도가 현재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까지 총 13개국 500여 명의 성도로 부흥했다. 3개국 12개의 지교회(말레이시아 6개, 태국 5개, 라트비아 1개)와 10개국 12개의 가정교회(중국 3개, 덴마크, 페로제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미국, 우루과이, 가나)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농아교회 담임 지정훈 목사가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등 유럽의 농아 성도들을 심방함으로 많은 성도가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특히 10월 28일, 라트비아 농아만민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 시에는 ‘믿음의 말씀’(히 5:13~14)이라는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자 심장질환, 오심,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독일에서 온 한 여 성도는 3개월 된 목의 통증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3).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8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100~105 -

“ 주의 법도를 지키면 명철이 임하여 앞길이 환히 보이니
방향할 필요가 없고 지름길을 신속히 찾아 나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 할지라도 언제나 앞길을 환히 비춰 주는 빛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신다면 조금도 막힘이 없고 힘들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주의 법도를 지키면 명철이 임하여 앞길이 환히 보이니 방향할 필요가 없고 지름길을 신속히 찾아 나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 인생의 등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했습니다. ‘명철’이란 영적으로 길이 환히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길이 환히 보이므로 노인보다 명철함이 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의 명철함을 노인과의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노인’은 단순히 나이만 많은 연장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통해 사리를 밝히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연륜이 쌓여 명철

함이 뛰어난 사람을 노인에 비유한 것이지요.

이처럼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사람에게 명철한 길을 제시받아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지혜의 근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전지전능하시어서 모든 것을 예지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처음과 끝을 성경에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좇아 행할 때 세상의 어떤 길보다 더 확실하고 튼튼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무너질 리 없고 좌우로 치우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길은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발에 등, 길에 빛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2.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이 되려면 첫째, 발을 금해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했습니다.

여기서 ‘발’이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함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 주는 몸의 지체가 발이기 때문입니다. 곧 ‘발’은 영적으로 세월의 흐름과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를 비롯해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으며 오직 선한 일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제9대 왕인 웃시아는 열여섯 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통치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어 유다를 번영케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래로 가장 부흥한 국가를 이루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져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월권하여 자신이 하려 한 것입니다(대하 26:16).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해야 했으며, 죽은 후에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지요.

이와 달리 요셉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도를 지키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대신이라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이처럼 악에서 떠나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늘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오고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는 것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며, 노인보다 승한 명철을 얻는 길임을 알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인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둘째,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규례’란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로 일정한 규칙과 법과 제도를 말합니다(출 12:17 ; 레 16:34 ; 대상 23:3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대대로 지키게 명하셨는데, 이는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행했던 모든 의식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약에서는 육의 할례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듯이 규례 역시 그 영적인 의미를 계승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고 지켜 나가면 결국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규례를 떠나는 만큼 원수 마귀 사단이 마음에 비진리와 악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면 마음에 비진리가 쌓일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이 주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전의 어떤 왕보다 악한 왕으로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여 심히 하나님을 격노케 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대의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요. 한번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도와 아람과의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에 임할 때 아합 왕은 혹시 적군이 자신이 왕임을 알아보고 죽일까 하여 변장까지 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간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은 채로 싸우지요. 그런데 전쟁이 맹렬한 가운데서 적군에 의해 죽은 사람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수치까지 당해야 했지요. 이것은 바로 주의 규례를 떠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지요(왕하 18:6-7). 한번은 앗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왕하 19:35).

이처럼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으면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명철이 주어지고, 또 그에 따라 방법론을 세워 나가면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말씀을 꿀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성경 인물로는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으로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융화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들 중에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들을 뽑을 때 다니엘도 그중에 하나로 뽑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왕이 지정해 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했지요.

그러자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하나님 앞

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 줄 것을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왕의 진미 중에는 우상의 제물이나 가증한 짐승의 고기 등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 있을까 염려됐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10일 동안 시험적으로 행한 결과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 결국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었기에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형통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가 하면, 사자굴에 던짐 받았으나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살아 계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꿀보다 달고 맛있게 먹는다면, 곧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행한다면, 주의 말씀이 등ियो 빛이 되므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넷째,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의 법도로 명철한 사람이 되면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주어지니 길이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명철하게 되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고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이 구별되면 자연히 진리를 굽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악이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는 몸이나 옷에 오물이 묻어도 별로 상관치 않고 그저 노는 것에 여념이 없지만 점차 자라면서 지식을 배우게 되면 오물이 더러운 것인 줄 알아 물로 씻거나 닦아 내려 합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불결한 것과 청결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대성의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내 안에 죄가 있어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명철한 자가 되어 미워해야 할 모든 거짓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있어서 악한 말, 망령된 말, 진실치 못한 말, 거스르는 말, 속이는 말, 패려한 말, 비방하는 말, 헛된 말, 원망하는 말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령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 값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거나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남을 속이는 것이지요.

셋째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한다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 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결국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라’는 것은 감정을 품거나 분을 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악을 버리는 것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며, 진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지요.

또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것 등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오직 진리를 좇아 행해야 몸도 영혼도 안전하게 지킴받고 보전받는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यो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범사에 형통함을 입어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p


달력 안의 비밀, BC와 AD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달력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 달력이 제정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주전(主前)과 주후(主後), 또는 기원전(紀元前)과 기원후(紀元後)라고도 말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원(紀元), 곧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연대를 나타낸다. B.C.란 ‘그리스도 이전’을 뜻하는 영어 ‘비포 크라이스트 (before Christ)’의 약칭이다. A.D.란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의 라틴어 Anno Domini의 약자이다. 이처럼 서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원(紀元), 곧 연도를 세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한다.

기원에 따른 연대표기는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사가(年代史家)이자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교황의 명을 받아 저술한 『부활제의 서(書)』에서 비롯되었으며, 9세기 샤를마뉴 시대에 일반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019년 만민중앙교회 달력



“오직 선을 행하니 월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송원규 집사 (49세, 3대대 26교구)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20년째 영양 솔부추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경의 일입니다. 전체 농경지 중에 1,000여 평을 임차한 농지 주인으로부터 “땅이 매매 계약되었으니 3개월 이내에 작물을 옮기고 비닐하우스도 철거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남아있지만, 수년간 팔리지 않던 땅이 좋은 조건에 팔리게 되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며칠간 여유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며 궁구하였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한다면 정당하게 소송을 걸어서 내 권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다툼이 생기고, 예전처럼 내 주장을 하다가 헐기라도 낸다면 하나님께 민망할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서도 터무니없이



달라고만 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주고 또 주시는 사랑을 보아왔기에 ‘나도 선으로 승리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니 무조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8월 첫째 주, 땅 주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도 좋다는 연락이 왔

습니다. 게다가 일전에는 미안하게 되었다며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까지 전해왔지요.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이번에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매년 부추 농사를 위해 첫 출하 때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역시 그렇게 하였더니 100여 년 만에 온 무더위로 부추 농사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가뭄 중에도 때를 좇아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오히려 작황이 좋아서 평균 3천만 원대의 월매출이 올해 8월에는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하나님과 주님만 의지하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중증 위염을 깨끗이 치료받고 물질 축복도 받았어요”

나탈리아 꼬로나도 성도 (33세, 페루만민교회)



▲ 어머니와 두 오빠와 함께한 나탈리아 꼬로나도 성도(왼쪽에서 두 번째).

저는 2015년 말부터 위염 증세로 인해 매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특히 밤에는 물을 마시며 위를 달래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나야 했지요. 정확한 원인을 알고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테리아에 의한 만성 위염이었습니다.

그 뒤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6월 재검사를 받게 되었지요. 결과는 중증 위염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게 되었지만 약효는 잠시뿐, 다시 통증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흑여 제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깨끗한 마음을 이뤄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통증이 지속되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어찌하든 감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저를 지켜 주시지 않는다고 불편해했던 마음과 교만 등을 회개하였지요.

2017년 8월 3일(목), 만민하게수련회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통해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

에도 의사는 아주 미약한 위염 증세만 있을 뿐 감염됐던 세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신속히 치료해 주셨고, 정녕 원하셨던 것은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저희 페루만민교회에서는 한국과의 사차관계로 인해 VOD를 통해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8월 7일(월) 수련회 첫째 날, 당회장님의 전체기도를 받은 뒤 저는 깨끗이 치료받아 온전히 건강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직장 에서 월급이 70%나 인상되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병원 자료



▲ 극심한 통증의 만성위염이 증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신속히 치료됨.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8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로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6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352-8336